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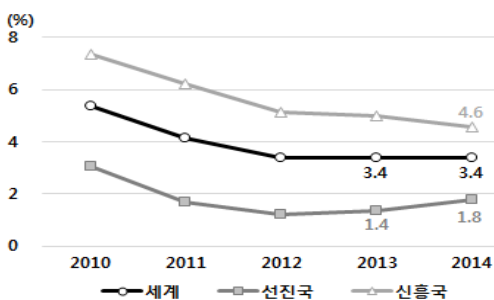
I.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2012년부터 매년 3.4% 성장하며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었던 세계경제는 2015년 3% 전후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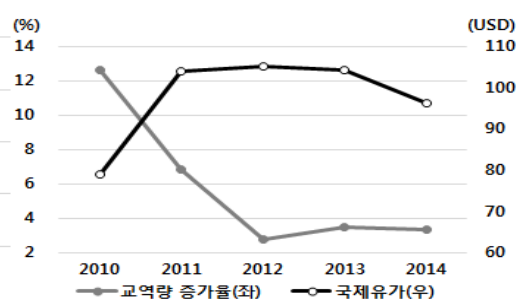
-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과 유사한 3.5%로 전망하였으나 OECD는 3.1%, World Bank는 2.8%로 하향 조정함.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



자료: IMF WEO(2015, 4).

그림 I-2 세계 교역량과 국제유가



■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주요국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9월로 예상되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환율시장과 더불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3 주요국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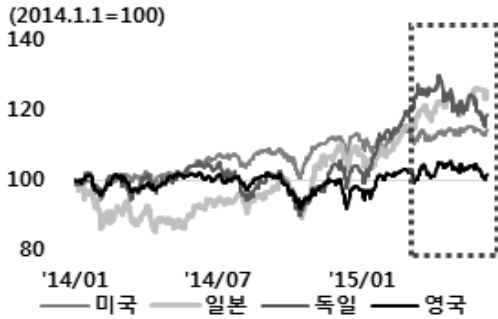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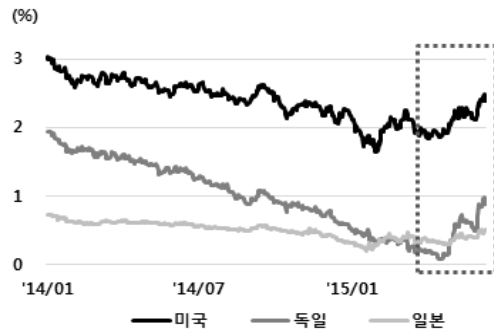


그림 I-4 주요국 국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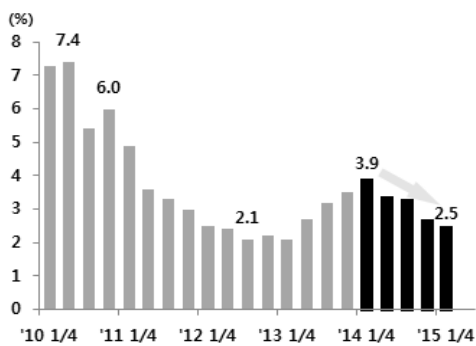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3.9%) 이후 성장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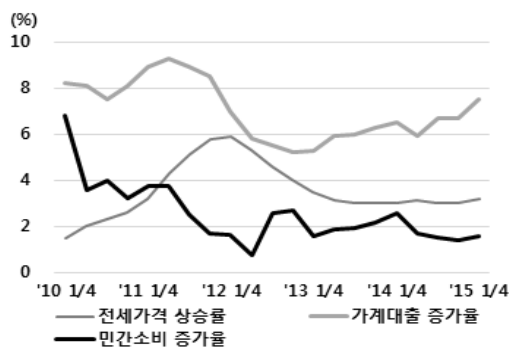
- 가계부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그림 I-5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가계부채 및 전세가격



- 또한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원화 강세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선진국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음.

그림 I-7 수출과 실질실효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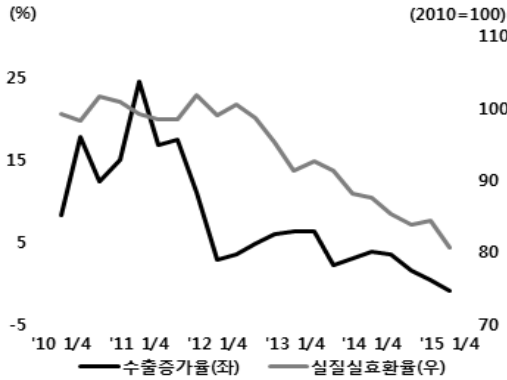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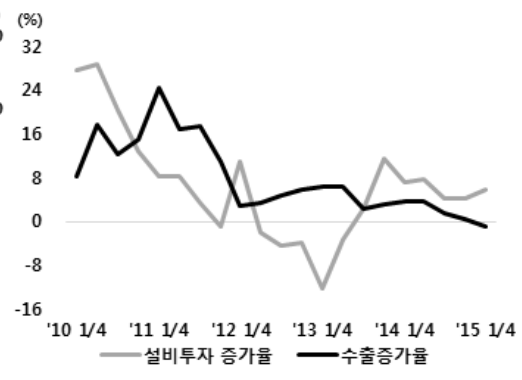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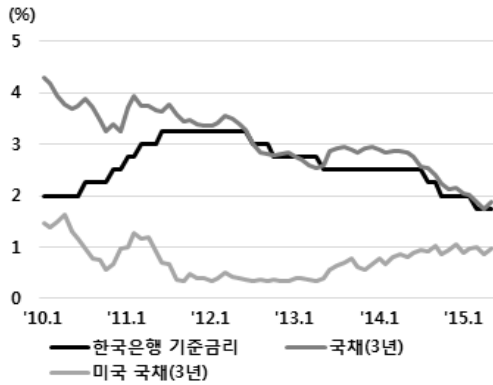
그림 I-8 수출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BIS.

-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외에는 물가 상승 요인이 없어 2014년 1.3%보다 0.4%p 낮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원화의 상대적 강세와 신흥국 등 세계경제 부진, 유가 하락,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입물가가 크게 낮아져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각각 8.3%, 12.0% 위축되고, 상품수지 흑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5월 중 평균 1.9%를 보였던 국채(3년) 금리는 6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 상승과 추경 등으로 하반기 높아져 연평균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5월 중 평균 1,09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연평균 1,120원이 전망됨.

그림 I-9 국채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I-10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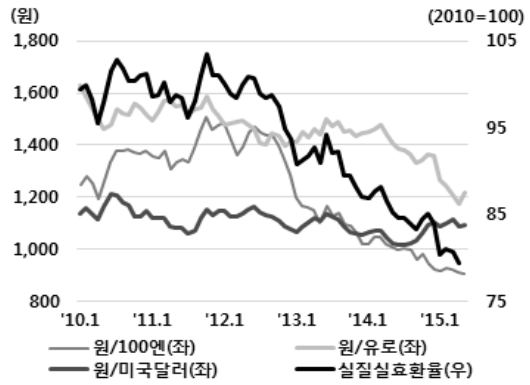


표 I-1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F) ¹⁾	
					기존 전망	수정 전망
실질GDP 성장률	3.7	2.3	2.9	3.3	3.7	2.7
민간소비	2.9	1.9	1.9	1.8	2.7	1.9
설비투자	4.7	0.1	-0.8	5.8	5.7	4.5
건설투자	-3.4	-3.9	5.5	1.0	2.9	3.0
지식생산물투자	6.9	8.6	4.4	4.6	6.3	4.7
재화수출	17.1	4.4	4.5	2.3	6.0	1.7
재화수입	17.6	1.9	1.3	1.2	6.5	2.1
소비자물가	4.0	2.2	1.3	1.6	2.0	0.9
상품수지(억 달러)	290.9	494.1	827.8	926.9	778.0	1,050.0
상품수출 증가율	26.6	2.8	2.4	0.5	4.0	-8.3
상품수입 증가율	34.2	-0.7	-3.4	-1.3	6.0	-12.0
국채(3년) 금리	3.6	3.1	2.8	2.6	2.6	2.0
원/달러 환율(원)	1,108	1,127	1,095	1,053	1,040	1,120

주: 1) 2015(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